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JENESYS)'을 통해 방일단 경험자의 동창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일본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유지를 촉진하고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이해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자】 한국의 대학생·사회인 등 합계 62 명
(내역)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선발 방일단 참가자 62명

【일정】

■ 동창회

2024 년 3 월 16 일 (토요일) (장소: 부산 시내)

(1) 일본과 각국 간의 연결 소개 :

데라에 히토미 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 일본어·일본연구부장
마쓰무라 야스요(松村康代) 시모노세키시(下関市) 파견직원
문미경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직원(JET 프로그램 경험자)

(2) 참가자의 활동보고 :

그룹별 성과 및 액션플랜 발표

(3) 순서 :

동창조직 '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약칭 : KJAFB)' 발족 및 임명식
그룹별 성과 및 액션플랜 발표
일본관련사업조직 소개(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 시모노세키시, JET 프로그램)
고 이수현 씨 기념사업 소개(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등

(4) 내빈 :

오스카 쓰요시(大塚剛)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이상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장
신윤찬 여사 (고 이수현 씨 모친)
강성할 부산일보 독자여론부장 겸 부서장
박준혁 부산롯데디자인츠 단장 (2004 년도 한국청년방일단 참가자) 등

2. 기록사진

	
2024년 3월 16일 동창조직 '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 발족 및 임명식	2024년 3월 16일 【기조강연】 시모노세키시 '지역의 매력소개'

3. 참가자의 감상 (발체)

◆ 한국 사회인

방일단 참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현재도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한일 양국의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 사회인 (고치현 홈스테이)

방일단 동문들과 다시 만나 서로의 근황을 묻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자신이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한국 대학생 (와카야마현 홈스테이)

처음 만난 분들과도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싶습니다.

4. 동창회실시 협력기관 감상 (발체)

◆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번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 in 부산'은 역대 영남지역 방일단 단원을 초대하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창조직 KJAFB(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의 정식 발족을 기쁘게 생각하며, KJAFB를 구심점으로 향후 한일 간 청년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한일우호증진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동창회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5. 보도자료

경상일보 HOME > 사회 > 종합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주최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 in 부산' 개최 ▲ 경상일보 © 승인 2024.03.17 15:50 □ 21면 동창조직 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 발족  일본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이사장 가토리 요시노리)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이사장 김영건) 주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총영사 오스카 츠요시) 후원으로 개최된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 in 부산' 행사가 16일 부산관광호텔에서 열렸다.	BUSAN 부산일보 한일 교류 청년들 마음 이은 '부산 동창회' 일한문화교류기금, 친선 행사 개최 JENESYS 방일단 100여 명 참석 부산일보 기자 kjang@busan.com 발행: 2024-03-17 08:04  생각지 않았던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지난 16일 부산 중구 유학동 부산관광호텔 컨벤션에서 개최된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 in 부산'을 열었다. '다자대화'를 위한 '동창회'를 'JAFB'로 '창조'하고 '발족'시키자 지난 16일 부산 중구 유학동 부산관광호텔 컨벤션에서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 in 부산이 열렸다. JAFB는 지난 21세기 폭스바겐과 협소한교류네트워크(Daewoo-Volkswagen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의 지원으로, 2021년에 시작됐다. 일본 최후방의 아시아의 대항망 지 국가의 교류학생, 대 학생 교류를 목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다자대화 교류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는 교류를 목적으로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JAFB의 창립이념인 '다자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한국에서는 21세기 폭스바겐이 열었다. 부산에서 열린 이번 동창회에는 JENESYS 방일단 참가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주최하고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주관,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이 후원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 가토리 요시노리의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 환영사,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축하, 총영사관 Korea-Japan Alumni Forum in Busan 2024년 발족 소개와 일한문화교류협회 인사말, 박영철 대 일한문화교류협회 소관 발족의 의미와 JAFB의 창립이념인 '다자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JAFB의 창립이념인 '다자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JAFB의 창립이념인 '다자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2024년 3월 17일(경상일보)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주최 “JENESYS 한국청년방일단 동창회 in 부산” 개최’ JENESYS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동창회 실시와 동창조직인 ‘KJAFB’가 발족한 취지가 소개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7일(부산일보) ‘한일 교류 청년들 마음 이은 “부산 동창회”’ JENESYS의 개요, 동창조직 ‘KJAFB’의 발족 및 초대실행위원장의 소감이 소개되었습니다.

6. 피초빙자의 현재 일본과의 연결과 활동내용사례 소개

 私は香川県の国際交流員として、県民に韓国を知らせたり、	현재 JET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홋카이도, 가가와현(香川県), 나가사키현(長崎県)과 오이타현(大分県)에서 한일의 문화교류에 종사하거나 일본에서 창업하여 양국을 무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등 많은 JENESYS 동창생들이 한일 교류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